

天命圖說에 대하여

李 載 喆☆

〈目 次〉

- | | |
|-------------------|----------------------------------|
| I. 머리에 | B. 萬曆 6年(1578年)綾城板本 |
| II. 著者論 | C. 趙穆後記本 |
| A. 著者表示의 問題 | 1) 退溪文集의 天命圖說 |
| B. 著者 鄭之雲의 傳記 | 2)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의 附錄인
天命圖說 |
| III. 內容論 | D. 崇禎庚辰(1640年)全州板本 |
| A. 天命圖說序 | E. 林羅山跋本 |
| B. 天命圖說의 舊圖와 新圖 | 正保 3年(1646年)本과 慶安 4年
(1651年)本 |
| C. 天命圖說(즉 附說) | F. 無刊記日本內閣文庫所藏本 |
| D. 天命圖說後叙 | V. 結 論 |
| IV. 刊本論 | |
| A. 嘉靖甲寅(1554年)初刊本 | |

I. 머리에

韓國性理學의 特質은 理氣哲學에 있다. 이 理氣哲學은 主理思想과 主氣思想의 두 潮流로 크게 區分되는데, 韓國에서의 이들 思想의 발전은 中國의 그것을 능가한바 있는 것이다. 기실 主理나 主氣니 하는 용어는 李滉(退溪)과 奇大升(高峯)간에 오고간 四端七情論辯의 書에서 비롯된 말이며, 동논쟁의 불씨가 된 問題의 作은 天命圖說인 것이다.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II. 著者論

A. 著者表示의 問題

天命圖說은 일반적으로 鄭之雲의 所著로 알려져 있다¹⁾. 그렇나 때로는 鄭之雲·李滉의 共著 또는 李滉의 저작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본다²⁾. 같은 著作에 대해, 이와같이 사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저자를 달리 지칭하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에 연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동저작이 鄭之雲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되 궁극적으로 李滉의 修正을 받아 완성된 점.

둘째, 대부분의 板本에 있어, 卷首題 다음의 著者表示(author statement)자리에 鄭之雲이라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혹 저자표시가 있는 板本の 경우에도 한책내에서 한곳은 ‘退溪李先生訂正’, 또다른 곳은 ‘秋澗鄭先生撰’으로 되어 있는 점. (IV장B항 綾城本 참조)

셋째, 동저작이, 鄭之雲의 序만 빼놓고, 李滉의 文集에도 그 전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점.

어쨌든 이 저작은 文獻에 따라 그 저자가 일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 그 저자를 과연 누구로 잡는 것이 타당할런지? 아래에, 이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鄭之雲은 天命圖說의 序(1554년)에서 그 著述動機와 경로를 다음과

- 1) 增補文獻備考, 海東文獻總錄, 朝鮮古書目錄, 古鮮冊譜, 朝鮮圖書解題 및 奎章閣藏書韓國本總目錄,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등 도서관목류에는 저자가 鄭之雲으로 기입되어 있다.
- 2)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 1965)에서는 때로는 李滉(232, 331, 521, 524), 때로는 鄭之雲, 李滉共著(164, 426)로 표시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때로는 鄭之雲(20 : 580 36 : 166나), 때로는 “李滉天命圖說初因鄭之雲所作”과 같이 李滉아래 기입하고 있다.

같이 말하고 있다.

正德己卯[1519年] 思齋金先生[正國]이 사소한 화를 입어 관직에서 물러서서 高峯의 芒洞에 사시게 되었다. 芒洞은 바로 乙雲이 사는 동네이어서, 乙雲은 일찍이 그 門下에서 受學하였다. 嘉靖丁酉[1537년] 先生이 朝廷의 부름을 받고 歸還하게 되매 乙雲은 그 依歸할 바를 잃게 되었다.

舍弟의 霖에게 집에서 天人之道를 講學할새, 霖이 배움이 어린데다 기뻐바 없고 헤아리는 힘이 약해서 걱정하고 있음을 보고, 내가 시험삼아 朱子의 說을 따고 다른 諸說을 참고하여 하나의 圖를 만들고, 이에 문답식으로 說明을 붙여 이 저작을 天命圖說이라 이름하였다. ... 나중에 慕齋[金安國]과 思齋[金正國] 兩先生에게 질의하였더니 兩先生은 責하지 않으시고, 가벼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못되니 얼마간 後日을 기다리라 하였다. 不幸히도 兩先生이 돌아가시니, 嗚呼 痛哉라 이 圖說의 草稿를 보여 校正받을 수 없게 되었음이어! ... 去年가을 退溪李先生[滉]이 不肖의 이름을 잘못 듣고 두세번이나 만나줄 것을 청해주셨다. 之雲은 그 殷勤하심에 감복하여 齋沐하고 나아가 退溪를 찾아뵈었다. 退溪는 반가이 맞아주셨다. 말씀이 天命圖에, 미치며 之雲은 곧장 訂正을 바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退溪는 간신히 응낙해 주셨다. 늘 往來하며 이 圖에 관해 질문하니 退溪는 古說에 의거해서 考證하며 自己의 見解를 參의해서 그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고, 쓸데없는 것을 삭제하여 마침내 이圖를 완성하여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두텁도다. 좃아서 이圖에 說明을 붙여 후에 가르침을 또 받으니 그 多幸한바 어찌 크지 않겠는가. 이는 나혼자만의 幸이 아닌줄 안다.

결국 이말은 鄭之雲이가 天命圖說을 저술하여 감수를 받기 위해 은사 慕齋金安國과 思齋金正國에게 보인바 있으나 그의 자세한 교정을 못받고 後日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不幸히 兩先生이 돌아가시매 李滉를 알게 되어 그의 지도와 교정을 받아, 이 저작을 완성케 되었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은 李滉의 後叙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의 인용은 위인용과 중복되었기에 여기서 생략하고, 다만 校正을 받은 鄭之雲의 姿勢와 그校正의 程度를 아는데 필요한 귀결만 아래에 引用해 보기로 한다.

滉이 드디어 太極圖와 그의 說明을 인용하여 天命圖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했다. “이런데는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하고, 이런것은 쓸데없는 것이니 삭제해야 하며, 이런 점은 모자라니 보충해야 하겠는데 그때의 소견은 어떻소” 이에 靜而[鄭之雲]는 잘알았다 하고 또한 불만스러운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남들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극력 辨難하고 충분히 남들하고 이해한 뒤에야 승복하였다.…… 그후 수개월이 지나 靜而가 고친 圖(改圖)와 그의 설명(附說)을 가지고와서 滉에게 보이매, 다시 들어서 參校해서 敵完시켰다.

위의 글은 등 校正이 李滉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鄭之雲의 남들과 양해와 승복을 전제한 것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生成된 저작에 대해 그 저자를 ‘李滉著’라 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鄭之雲, 李滉共著’로 표시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본다. 이러한 저작에 대한 저자성은 그의 저술자(원저자)에게 돌리는 것이 목록학 또는 서지학의 상식인줄 안다. 결론적으로 이 天命圖說에 대한 저자표시는 ‘鄭之雲著’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며, 李滉의 後叙가 수록된 板本에 대해서는, ‘鄭之雲著, 李滉後叙’라 표시하는 것이 좋겠고, 李滉의 訂正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鄭之雲著, 李滉訂正’³⁾이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B. 저자 鄭之雲의 傳記

저자 鄭之雲은, 字를 靜而, 號를 秋櫟이라 한다. 1509年(中宗 4年) 慶州에서 태어나 나중 高陽의 已浦에 옮겨 살았다. 曾祖 夏는 通禮院의 引儀 벼슬을 지냈으나 祖 漢淑, 考 仁弼은 다 숨어살고 벼슬하지 않았다. 鄭之雲은 젊을 때부터 자질이 뛰어나 범상치 않았으며, 항상 옛 聖賢을

3) 天命圖說에 대한 李滉이 권여관계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訂正(綾城本의 저자표시, 退溪年譜, 秋櫟居士鄭君墓碣銘并序), 改訂(退溪年譜), 考訂(退溪의 後叙), 修訂(趙穆의 後記), 參訂(趙穆의 後記), 參校(退溪의 後叙), 證正(鄭之雲의 序, 退溪의 後叙, 朝鮮王朝實錄 20 : 580가). 따라서 본문에서 李滉訂正이라 표시된 것의 訂正이란 말은 이들 발증에서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골라 代替할 수 있다.

본받기를 원하더니, 때마침 思齋金正國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그 고을 泮洞에서 살때, 從遊하여 性理學을 修學하였다. 뒤에 慕齋金安國의 門下에서 배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孝義에 돈독하여 父母의 喪에 몸소 밧짓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은사 金正國이 돌아가서서는 心喪 3년상을 지냈다. 집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곤궁하였으나 끝까지 升斗의 祿에 뜻을 굴하지 않았다.

李滉은 그가 쓴 秋巒居士鄭君墓碣銘并序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鄭之雲과의 交遊關係와 天命圖說과의 인연과 鄭之雲의 學問性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滉의 寓居가 君과 洞里는 같았으나 서로 만나지 못하였고, 이미 다행히 서로 만나게 되어, 함께 商蒙·心經 등 글을 읽어 무릇 滉이 전날에 의심하던 바를 군에 의하여 제발된바 많았다. 군이 또 일찌기 天命圖說을 지어서 滉에게 이의 訂正해 줄것을 요구해서 이를 봐준 적이 있다. 아마 군의 學問은 처음에 順序를 밧지 못하였으며, 정밀히 연구하고 반복해 익히는 공부에 애쓰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그의 觀察力은 참으로 儘倒한데가 있는가 하면 소홀한 곳도 또한 있었다.… 만약 군으로 하여금 엄한 스승을 드러워한 벗사이에 始終 주선해서 그 學問을 확충하였더라면 그 성취한바 어찌 헤아릴 수 있었으리오.”

鄭之雲이 學問에 대한 才質과 素質은 있었으나 어릴적의 기초훈련이 부족하여 大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말이다.

鄭之雲은 1561년(明宗 16年) 그의 나이 53세되던 해 봄에 別世하였다. 그가 남긴 저술은 비록 天命圖說 한권 밖에 없지만 그 한권의 저술로 그는 韓國性理學史에 큰 이름을 남긴 것이다. 동 저작은 日本에도 건너가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을 접한 日本의 성리학자 林羅山(1583—1657)은 그 저자의 재능에 대해 “어느땅에서 이같은 才士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⁵⁾하고 크게 감탄한바 있다.

4) 李滉, 退溪全書, 增補版(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71), 2 : 438—439, (原卷은 47 : 7나—9나).

5) 林羅山跋, 慶安4年(1651)本, 30.

Ⅲ. 內 容 論

天命圖說의, 天은 理이며, 命은 天(理)이 人과 物을 生할때에 주는 것을 가르친다. 命은 또한 人과 物의 입장에서 性이라 일컫기도 하므로 天命이란 곧 性命理氣를 가르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書名「天命圖說」이란 뜻은 性命理氣의 學을 圖說 즉 圖解 형식으로 논술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저자 鄭之雲이, 그의 序(1554년)에서 이 책의 著述動機를 동생 霖에게 天人之道를 講學할 필요에서였다고 述하고 있고,⁶⁾ 동 序와 附說에서 參考文獻으로 性理大全의 論人物之性, 周敦頤의 太極圖, 趙致遠의 誠幾圖를 들고 있으며, 또 李滉이 그의 後叙에서 이밖의 參考文獻으로 子思의 中庸과 邵康節의 先天圖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책의 內容 範圍와 性格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해주는 바 있다.

이책에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目次는 없지만, 決定版과 같이 보이는 全州板本에 의해 그의 編次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天命圖說序

天命舊圖

天命新圖

天命圖說[즉 附說]

天命圖說後叙

아래에 全州板本에 의거하여 編次別로 대강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A. 天命圖說序

저자 鄭之雲이 1554년 正初(嘉朔甲寅正月: 朝)에 쓴 이 序가 담고 있

6) 綾城本の 卷首에 실려있는 鄭之雲의 天命圖解序(1543년)에는, 舍弟霖을 위해서 저술케 되었다는 말 대신 “一家의 子弟들에게 天人之道를 講하다”가 (與一家子弟 講此天人之道) 필요를 느껴 저술케 되었다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는 內譯은, 그가 金正國과 金安國의 門下에서 배움을 받게된 이야기, 동생 霖을 위해 天命圖說을 짓게된 동기와 參考文獻, 天命圖의 草를 끝낸 뒤 조언을 얻기 위해 金正國 金安國에게 보인 이야기, 최종적으로 李滉의 校正을 받은 이야기와 謝意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關鍵들은 이미 前章에서 인용되었기에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B. 天命圖의 舊圖와 新圖

舊圖·新圖의 순이 全州板本을 비롯한 일반 板本の 경우이나, 刊本에 따라 어떤 것은 新圖·舊圖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新圖는 그의 末尾餘白에 “退溪先生刪繁改圖”란 어귀가 있는데 반하여 舊圖엔 그것이 없기 때문에, 舊圖는 退溪의 校正을 받기 이전의 것이고 新圖가 비로소 李滉의 修正을 받은 圖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 듯 한데, 실체는 舊圖도 李滉의 考訂을 받아 발표된 圖이다. (Ⅳ장B절 萬6曆年綾城本 참조)

新圖는 舊圖의 그것과 대체로 같은 형태, 같은 내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달라진 점도 있다. 그중에서도 四端七情의 發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변동이다. 舊圖에선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⁷⁾였던 것이 新圖에선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고쳐져 있는 것이다.

李滉이 그의 철학에서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란 문구 및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란 문구를 쓰기 시작한 것은, 天命圖說의 발표후 그와 奇大升과의 사이에 四端七情의 論爭이 벌어졌을 때 그가 奇大升에게 보내거나 답한 書翰에서 비롯된다. 李滉이 天命圖說의 校正을 봐주고 그의 後叙를 쓴해는 1553年 12月(嘉靖癸丑臘平)이며, 그것이 初刊된 해는 그 이듬해인 1554年 正初(嘉靖甲寅正月朔朝)이

7) 退溪文集(41:10나)에 수록된 舊圖엔 四端七情의 發을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로 표시하고 있지만, 天命圖說 全州板本및 日本板本들의 舊圖엔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 표시되어 있다.

다. 이 무렵까지 李滉은 四七의 發을 四端發於理 七情發於理로 보았을 것이다. 설혹 그說이 자기의 發說이 아니고 鄭之雲의 發說이라 치더라도 이에 대해 그는 별 異議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그가 天命圖說의 校正을 봐준지 6년 뒤인 1559년에 奇大升에게 보낸 書翰에서 비로소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란 말로 四七의 發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己未年(1559년)의 날짜가 붙은 奇大升에게 보낸 書翰에서 李滉은 다음과 같이 구차스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士友들을 통하여 四端七情의 說을 논한 것을 전해 들었는데, 나의 의견도 이점에 있어서는 일찌기 스스로 文句가 온당하지 못하여 병폐로 여겨던 참이었습니다. 교정하고 논박하여 주시니 더욱 蔬繆하였음을 깨닫고 바로 고치기를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性之發兼氣故有善惡(四端의 發은 純理이므로 옳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七情의 發은 氣를 兼하였으므로 옳한 고도 있고 옳한 것도 있다)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을 곁들면 병폐됨이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⁸⁾

이와같은 말을 던진지 1년 남짓해서 李滉은 또다시 그의 說을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고치고, 이를 그의 新圖에 採記하였다. 즉 156年(嘉靖 39년) 11월에⁹⁾ 그가 奇大升에게 답한 書에서 다음과 같은 귀절을 보는 것이다.

近間에 朱子語類에서 孟子의 四端을 논한 마지막 一條에 바로 이문제를 논한 것을 보았는데, 그 說에 이르기를,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四端은 理의 發이요, 七情은 氣의 發이라)하였습니다. 옛 사람이,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그 스승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朱子는 나의 스승이요 또한 天下古今의 존경 받는 선생입니다. 이 說을 얻은 연후에 드디어 내 소견이 크게 그릇됨에 이르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초 鄭生[之雲]의 說도 역시 병통이 없이 고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¹⁰⁾

8) 李滉, 前揭書, 1: 402나(原卷으론 16: 1나).

9) 上揭書 3: 583다(原卷으론 年譜 1: 16가) 嘉靖三十九年庚申先生六十歲十一月答奇高峯書四端七情.

10) 上揭書, 1: 407다(原卷으론 本集 16: 12가)

朱子語類 중에 나오는 문구를 援用해서 그의 四七說을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다시 삼은 李滉은 8년 뒤에 또한번 그의 견해를 바꾼다. 즉 1568年 12月¹¹⁾ 그가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의 第六 心統性情圖에서, 그는 四七의 發에 대한 그의 說을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四端은 理가 發하여 氣가 따르고, 七情은 氣가 發하고 理가 이에 올라 탄다)라고¹²⁾ 修正한 것이다. 바로 이 說이 그의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 되는데 天命圖說의 後刊本에는 끝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李滉의 四端七情의 發에 대한 견해의 변천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初刊本(1554年刊)엔 1560年 비로소 쓰기 시작한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란 문구가 담긴 新圖가 수록될리 없으므로, 그것(新圖)이 마련된 것은 그 문구를 李滉이 쓴 1560年 이후의 일일 것이며, 그것이 ‘新圖’란 이름으로 天命圖說의 刊本에 수록되기는 그의 重刊本 또는 退溪文集이 나오면서부터일 것이다. 萬曆6年(1578년)의 刊記를 가진 綾城本에는 벌써 이 新圖가 ‘退溪李先生天命圖’란 제목아래 나오고 있다.

한편 舊圖에 표시된 四七의 發이 板本에 따라 어떤 것은,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또다른 것은,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라고 달리된 것은, 전자는 初刊本 또는 1558年 이전에 書寫된 寫本의 경우이고, 후자는 1559年 이후의 寫本 또는 刊本들의 경우일 것이다.

이 天命圖는 上圓下方, 頭圓足方, 天人合一의 원리에 입각해서, 陰陽消長圈의 큰 둥그라미 안에 四德五行圈, 天命圈을 그려놓고, 그 아래에 겹차로 心·性·氣·質·情·意·善·惡의 分과 四端七情의 發을 표상한 것이다. 李丙齋박사도 지적하였드시, 그 大旨는 權近이 지은 入學圖說의 天人心性合一圖에서 연유한 것이며, 앞서 논급한 四七相對之論 역

11) 上揭書, 3: 592나(原卷은 年譜 2: 15나) 隆慶二年[1568년]…先生六十八歲…庚寅 上聖學十圖并劄子.

12) 上揭書, 1: 204라(原卷은 本集 7, 22나)

시 入學圖說에 根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C. 天命圖說〔즉附說〕

상기 天命圖說의 構圖 및 性命理氣에 대한 철학적 해설은 이 附說에 자세히 문답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 附說은 十個節로 되어 있는데, 그 目次는 다음과 같다.

第一節	論天命之理	第六節	論人心之具
第二節	論五行之氣	第七節	論性情之目
第三節	論理氣之分	第八節	論意幾善惡
第四節	論生物之原	第九節	論氣質之品
第五節	論人物之殊	第十節	論存省之要

各節別로 아래에 그내용을 요약해서 적기로 한다.

第一節 論天命之理

天命의 뜻을 물으매, 선생은, “天은 理이다. 그 德에 네가지가 있으나 元亨利貞이 그것이다. 子思는 말하기를, ‘天이 命한 것은 곧 性’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네가 陰陽五行이 妙하게 습한 근원이며, 네가지 德을 가르켜 天命이라 한다.”라고 대답하시다.

第二節 論五行之氣

하늘이 이미 四德으로 萬物에 命하였다면 이른바 五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선생은 “理는 이른바 四德이요 氣는 이른바 五行이다. 그것들이 流하는 때에, 元은 物을 비롯(始)하게 하는 理로서 木의 氣가 이어 生하게 하고, 亨은 物을 通하게 하는 理로서 火의 氣가 이어 長하게 하며, 利는 物을 이룩(遂)하게 하는 理로서 金을 이어 收(收)게 하며, 貞은 物을 성취(成)케 하는 理로서 氣가 이어 감추어 준다.”라고 대답하시다.

13) 李丙巖, 權陽村의 入學圖說に就いて(下) 東洋學報, 18: 132-135(1929年 8月)

第三節 理氣之分

圖에 四德과 五行이 자리를 같이한 이유와 五行이 陰陽消長圈속에 圈을 새로 잡아 쓴 이유, 四德이 그 五行圈속에 또다시 圈을 새로 잡아 쓴 이유를 물으니, 선생은, “理를 떠나 氣가 있을 수 없고 氣를 떠나 理가 있을 수 없다. 理氣는 잠간 동안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四德五行이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분수인즉 서로 섞이어 분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五行圈 속에 또다시 圈을 달리해서 四德의 圈을 마련한 것이다. 五行을 陰陽圈속에 둔 것은 그것들이 모두 二物이 아닌 때문이며, 四德을 五行圈에 자리잡게 한 것은 五行이 四德을 포함하여 하나의 陰陽이 되어 각각 그성이 하나가 됨을 보인 것이다. 五行圈에서 또다시 四德의 圈을 가진 것은 理가 마침내 氣에 섞이지도 않고, 또한 氣에서 떠나지도 않는 것을 보인 것이다.”라고 대답하시다.

第四節 論生物之原

元이 物을 비롯(始)하게 하는 理로서 木의 氣가 이어 生하게 하는 것이라면, 物을 生하는 근원도 마땅히 木에 근본함이 마땅한데, 圖에는 그것이 水로되어 있으니 어찌된 까닭이냐고 물으니, 선생은, “그 질의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元의 理는 본시 元에서 나오지 않고 貞에서 나왔으며, 木의 氣는 본시 木에서 나오지 않고 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水는 物을 감추는(藏하는)氣도 되고 또한 物을 生케하는 氣도 된다. 대개 物을 生하게 됨은 그 처음에는 모두가 먼저 水의 氣를 받아 점차로 엉키고 모이어 한참후에야 굳어져서 形象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시다.

第五節 論人物之殊

人的 性形과 物的 性形은 天地의 理氣에서 본디 균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人과 物사이에 다름이 없을 터인데, 圖에는 人的 形體에는 그 전체를 회계하여 ‘五性旁通’(五성이 두루 通함)이라 하였고, 禽獸에는 그 性圈에 위서 아래로 한가닥의 줄을 회계하여 ‘或通一路’(간혹 하길은

通함)이라 하였으며, 草木에는 그 性圈은 회계하고, 그 전체는 길게하여 ‘全塞不通’(전혀 막혀서 通하지 않음)이라 하였으니, 무슨 까닭에서 그러냐고 물으니, 선생은, “天地사이에 理는 하나이나 氣는 만가지로 같지 않다. 대개 만물이 지닌 理와 氣는 그 性에 사이(다름)가 없으나, 그 氣는 치우침(偏)과 바른(正)이 없을 수 없다. 人과 物이 생활 때 陰陽의 바른氣(正氣)를 얻은 것은 人이 되고, 치우친 氣(偏氣)를 얻은 것은 物이 된다. 人은 陰陽의 바른氣(正氣)를 얻은 관계로 그 氣質이 通하고 밝으며, 物은 陰陽의 치우친氣(偏氣)를 얻은 관계로 막히고(塞하고) 어두우며, 禽獸는 치우친 가운데에 바른(正)이 있고(偏中之正), 草木은 치우친 가운데에 치우침이 있다(偏中之偏). 그러므로 禽獸는 그 氣質에 간혹 한길쯤 通하는 것이 있고. (或有一路之通), 草木은 다만 그 理만 갖추었을 뿐 전혀 막히어 通하지 못한다(全塞不通). 이와같이 그 性圈이 혹은 通하기도 하고 혹은 막히기도 하는 것은 이 氣의 바른(正)과 치우침(偏)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요, 그 形象이 혹은 검고 혹은 흰 것은 이 氣의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시다.

圓·方·橫·逆으로 人과 禽獸와 草木의 형상이 달리 그려진 것은 무슨 까닭에서냐고 물으니, 선생은, “이역시 陰陽二氣의 所致이다. 陽의 性은 順하고 卞하며, 陰의 性은 逆하고 倒하다. 그래서 人은 天地의 秀子가 되어 陽을 이루었으므로, 머리가 하늘과 같고 발은 땅과 같아(圓頭足方), 평평하고 곧게 서있으며(平正直立), 物은 天地의 偏塞子로서 陰이 되었으므로, 혹은 橫으로 있고 혹은 逆으로 있다. 禽獸는 陰中之陽이므로 生이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고 橫으로 있으며(禽獸大橫), 草木은 陰中之陰이므로 生이 아주 거꾸러져 逆으로 있다(草木逆生).”라고 대답하시다.

第六節 論人心之具

사람(人)의 마음(心)이 지니고 있는 것을 분별해서 말해달라고 물으니, 선생은, “사람의 마음(心)은 虛하고 靈하여 理와 氣의 집(舍)이다.

그 理는 四德의 理로서 五常 즉 仁義禮智信이 되고, 그 氣는 陰陽의 氣로서 氣質을 이룬다. 五常은 純粹히 善하기만 하고 惡이 없으므로, 그 發한 바 四端이 善하지 않은 것이 없고, 氣質은 本然의 性이 아니므로 그 發한 바 七情은 邪惡에 흐르기 쉽다. 性과 情은 그 쓰임이 모두 마음(心)의 妙함에서 오는 것이니, 항상 마음(心)이 主宰가 되어 그 性情을 통솔한다. 이것이 사람 마음(心)의 대개이다.”라고 대답하시다.

그러면 情이 心圈밖에 그려져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고 물으니, “그것은 心圈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림의 표현상 부득이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하시다.

第七節 論性情之目

性情의 조목(目)을 四德과 五行에 相準시켜 나열한 것은 어찌서냐고 물으니, 선생은 “人的 五성과 四端은 天의 四德과 相應하여 각각 그 소속이 있으며, 七情은 그 나뉠이 參差한 듯하나 유취해서 가만히 미루어 보면 이 역시 각각 五行과 합치되는 것이 있다. 즉 喜愛는 木에, 樂은 火에, 怒惡는 金에, 哀는 水에, 欲은 土에 모두 짝이 되어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시다.

第八節 論意幾善惡

‘意’字 아래에 ‘善幾’나 ‘惡幾’나 하는 것이 있음은 어찌서이냐고 물으니, 선생은, “意는 마음(心)의 發함이다. 마음(心)은 性情의 主宰者이다. 마음(心)이 發하기 전의 상태는, 太極이 動靜의 理를 갖추어 있되 갈라져서 陰과 陽이 되지않은 것과 같다. 한 마음(心)안에 혼연한 一性이 순수히 善한것만 있고 惡한 것은 없다가, 마음이 發할때에 미쳐서는, 太極이 갈라져서 動은 陽이 되고 靜은 陰이 되는 것과 같다. 마음의 發한바 意는 情을 끼고 左右되기 때문에 혹은 天理의 公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人慾의 利를 따르기도 한다. 이것을 가르켜 意는 善의 發(善幾)과 惡의 發(惡幾)을 다같이 지녔다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시다.

第九節 論氣質之稟

人은 모두 氣의 바른것(正)을 얻어 生였다고 하였는데 어찌서 人에게 上智, 中人, 下愚의 등급의 다름이 있느냐고 물으니, 선생은, “人이 生할때에, 氣를 天에서 받는다. 天의 氣는 맑은 것도 있고 탁한 것도 있다. 質은 地에서 받는다. 地의 質은 순수한 것도 있으며 복잡한 것도 있다. 맑고 순수한 것을 받은이는 上智가 된다. 上智는 天의 理 알기를 이미 밝게 하고 行하기를 이미 다하여 스스로 天과 함께 합치된다. 맑되 복잡하거나 탁하되 순수한 것을 타고 난이는 中人이 된다. 中人은, 天의 理를, 어떤 경우는 남음이 있게 알으나 行함이 부족하고, 어떤경우엔 앞에 부족함이 있으나 行함에 남음이 있어서, 天에 합치되는 것도 있고 어긋난 것도 있다. 탁하고 박잡한 것을 얻은이는 下愚가 된다. 下愚는 天의 理를 알(智)에 어둡고, 行함에 간사하여, 天과는 멀리 어긋나 있다. 學問의 道는 氣質의 아름답고 惡한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天의 理를 아는 것이 밝은가 밝지 못한가, 天의 理를 行하는 것이 다하였는가 다하지 못하였는가의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대답하시다.

第十節 論存省之要

心圈속에 적힌 ‘敬’·‘存養’과, 情意圈 속의 ‘省察’·‘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선생은, “이 天命을 받아 四德의 理를 갖추는데 있어 한 몸의 主宰가 되는 것은 마음(心)이요, 事物이 마음(心)이 감추되어 善惡의 幾를 따라 마음의 쓰임이 되는 것을 情과 意라 한다. 君子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存養해서 그 體를 보존하고, 情意가 發할때에 省察하여 그 쓰임을 바르게 해야 한다. 君子의 學問은, 이 마음이 발하지 않을 때에 敬을 주로하여 存養의 공부를 더해야 하고 이 마음이 發할 때에는 반드시 省察의 공부를 더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敬學의 始終을 이룩하는 것이 體·用에 貫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切要한 뜻이 더욱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하시다.

D. 天命圖說後叙

이 後叙는 淸涼山人 즉 李滉이 쓴 것이다. 그 내용은 자기(滉)가 鄭之雲을 알게된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天命圖說의 교정을 봐준 이야기, 어떤 客이 찾아와 天命圖에 관해 여러가지 질의를 던진데 대한 대답 내지 변론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동 질의 응답은 이 後叙의 主部를 이루는 것으로 상기 附說에 못지 않게 天命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參考가 된다.

IV. 板本論

天命圖說의 板本은 韓國本과 더불어 日本本도 있는데 모두가 木板本들이다. 大別해서, 韓國本에는 (A) 嘉靖甲寅(1554년)初刊本과, (B) 萬曆6年(1578년)綾城本과, (C) 趙穆後記本과, (D) 崇禎庚辰(1640년)全州板本이 있으며, 日本本으로는 (E) 元和辛酉(1621년)林羅山跋本과, (F) 無刊記跋內閣文庫所藏本이 있다. 즉 韓國本으로 4種, 日本本으로 2種, 도합 6種의 刊本이 있는 셈이다.

아래에 各板本別로 그 書誌學的인 고찰을 해본다.

A. 嘉靖甲寅(1554)初刊本

嘉靖甲寅(1554)年の 刊午를 지닌 初刊本이 현존해 있다는 말도 아니며, 그런 刊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은 문헌을 보았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현존한 다른 板本들에 그것들이 重刊本임을 스스로 암시해 주는 跋文이 있어서 그 이전의 初刊本이 있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다. 그럼, 그 初刊本이 언제 刊行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退溪年譜에 보면 다음과 기록이 있는데,

嘉靖 三十二年 癸丑, 先生의 나이 五十三歲되던 해 10月, 鄭之雲의 天命圖를 改訂하다(改訂鄭之雲天命圖)¹⁴⁾

이는 鄭之雲이 李滉의 교정을 받은 날짜가 1553年 10月임을 확인시켜 주는 문헌이다. 天命圖說에 붙은 李滉의 後叙는 그 叙記에, ‘嘉靖癸丑 臘平清涼山人書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1553年 12월에 쓰여졌다. 鄭之雲이 序를 쓴 해는, 그 序記에 嘉靖甲寅正月朔朝秋巒居士鷄林 鄭之雲序’라 적혀 있는 바와 같이, 1554年 正月 初하룻날 아침이다. 결과적으로 校正을 봐준지 두어달만에 後叙가 쓰이고, 後叙가 쓰인지 한 달도 채 안되어서 序가 쓰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冊의 刊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고 어렵한다. 李滉을 찾아 校訂을 청한 것이 반드시 冊 刊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도, 그의 은사인 金正國, 金安國의 잇단 사망으로 이미 탈고된 원고의 교정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李滉을 알게 되고, 그이로부터 교정을 받게 되자 숙원인 出刊을 위해 李滉에게 後叙를 써줄 것을 청했을런지 모를 일이다. 또는 李滉측에서 교정을 봐주다 보니까 그 제작이 훌륭하므로 鄭之雲에게 그의 出刊을 중용하고 그것을 위해 後叙를 써서 넘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원래 ‘後叙’란 말은 ‘後序’의 동의어로서 책의 編次上的 용어인 것이다. 어쨌든 책의 序나 後叙는 흔히 책의 編刊時에 쓰여진다. 그리고 그 序를 쓴해는 일반적으로 그 板本의 刊年과 일치된다. 따라서 필자는 天命圖說의 初刊年을 그 序가 쓰인 1954年으로 推定해 보는 것이다.

B. 萬曆6年(1578년)綾城板本

萬曆13年(1585년)刊 攷事撮要의 冊板目錄部에 보면 全羅道 綾城下에

14) 李滉, 前掲書, 3:581(原卷으론 年譜 1:12가)

‘天命圖’란 著錄이 나온다. 同板本은 開化이후 이제까지 학술논문이나 또는 서지, 목록 등에 전혀 비추이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同板本을 金完變翁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金翁所藏本의 天命圖說에 “萬曆六年[1578년]六月綾城縣開板”이란 刊記가 있는 점으로 보아 그것이 攷事撮要 冊板目錄에 나오는 板本임이 확실하다.

이 板本の 編次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天命圖解序

…嘉靖癸卯[1553년]二月辛卯 秋巒

居士手記于二山之靜軒

秋巒鄭先生天命圖

天命圖說 退溪李先生訂正

河西金先生天命圖

退溪李先生天命圖

天命圖解 秋巒鄭先生撰

天命圖說後叙

…嘉靖癸丑[1553]臘平清涼山人謹書

[刊記]：萬曆六年[1578]六月日綾城縣開板

이 板本이 지니고 있는 特異點의 하나는 李滉의 訂正本과 더불어 鄭之雲의 草稿도 수록하고 있는 점이다. 상기 目次에서 보듯이, 동 저작은 처음 鄭之雲의 草稿時엔 「天命圖解」란 표제를 지녔는데, 나중 李滉의 訂正을 받을 때에 「天命圖說」이라 그 표제를 바꾸었으며, 鄭之雲의 草稿는 序까지 포함하여 1543년에 완성되었는데, 李滉으로부터 訂正을 받은 것은 1553년이다. 결국 鄭之雲은 草稿를 완성하고 나서 訂正을 받을 때까지 10年間の 推敲期間을 가진 폭이 된다.

이 板本에 실린 두附說(天命圖解와 天命圖說)은 文章 또는 文句가 약간 달리 표현되고 있을 뿐 그 要旨는 같다. 그러나 兩圖, 즉 ‘秋巒鄭先

生天命圖'와 '退溪李先生天命圖' 사이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본다. 즉 전자는 판 板本에서 말하는 '新圖'와 똑같은 것이지만, 후자는 판板의 '舊圖'가 아니다. 이른바 新·舊圖는 모두 佩鐵의 옷자리를 子方으로 잡고 이에 五行의 水旺을 맞추고 있지만, 鄭之雲의 原圖에서는 옷자리를 午方과 火旺에 맞추고 그 반대편의 아래자리를 子方과 水旺으로 잡고 있다. 또 新舊圖에는 모두 四端七情의 發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이 原圖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이 板本에는 鄭之雲이 原圖와 李滉의 新圖뿐만 아니라 '河西金先生天命圖'라 題한 金麟厚(1510—1560)의 西銘事天圖도 수록되어 있다. 이 金麟厚의 天命圖는 1557년에 저술된 것으로서, 그의 文集에는 이미 傳하지 않는 것으로 적혀 있다¹⁵⁾. 그런데 이 板本에 그것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卷首의 鄭之雲의 序 역시 다른 板本의 그것과 다르다. 다른 板本들의 序는 1554年正月朔朝에 쓰인 것인데, 이 板本의 것은 그보다 11년 앞선 1543年 2월에 쓰인 것이다. 1543年의 序에는 金正國과 金安國으로부터 受學한 이야기와 李滉으로부터 校正을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으나, 이 1554年의 序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또 1543年의 序에는 이 저작의 저술동기를 그의 동생 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1543年의 序에는 一家子弟를 위한 것으로 적혀 있다. 1543年의 序, 즉 이 板本의 序에서 鄭之雲은 먼저 天命의 의의와 중요성을 말하고서,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이 그의 저술동기와 그가 참고한바를 적고 있다.

...나역이 이 圖를 감히 혼자 터득하여 後學에 傳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一家의 子弟들에게 이 天之道를 講論하였는데, 모두 初學의 어리석은 자들이 데다, 그들에게 보일만한 圖形이 없어 끝내 터득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나는

15)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附錄卷之ろ 3年譜[嘉請]三十八年己未[1559년]先生五十歲 冬與奇高峯講論四端七情之說 時高峯退處于鄉 每詣先生討論...如此故及先生歿後 高峯與退溪講論四七互發之多述先生之意先生之以下之殆數.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내 식견의 얇고 막힘(淺蕪)을 무릅쓰고 先儒의 論著를 採集·參考하여 圖를 작성하여 신고 이에 알기쉽게 해설(附說)을 붙여, 子弟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니, 이 책을 보는 이들은 너그럽이 이를 봐주고 꾸짖지 말기 바란다.

이 綾城板本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578년에 간행된 것인데, 여기에 1554년의 序가 수록되지 않고, 1543년의 序가 수록된 것은 이 鄭之雲의 圖와 說이 李滉의 교정을 받기 이전에 쓰인 草稿임을 말해준다.

이 冊의 張數는 19張이고, 책의 크기는 38.4×28.8cm, 板廓은 四周 雙邊, 半葉匡郭은 26.8×26cm이며, 有界로 16行 20字이고, 小字는 雙行이며, 版心은 上下內向黑魚尾, 版心題는 天命圖로 되어 있다.

C. 趙穆後記本

이本은 天命圖說의 末尾에 “戊午〔1558年〕春趙穆士敬書”란 後記가 붙은 것을 가르킨다. 이本에는 두가지의 板本이 있는데, 그 하나는 「退溪文集」에 수록된 것이고, 또 하나는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의 附錄으로 붙은 本이다. 전자의 경우는 동後記가 天命圖說의 마지막 節인 第十節이 끝나는 바로 다음에 적혀 있고, 후자의 경우는 李滉의 後叙 다음에 적혀 있다. 동後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의 圖說은 癸丑年間〔1553년〕 선생이 都下(서울)에 계실 때에 鄭公〔之雲〕과 함께 參訂해서 완성한 것인데, 그 精妥한 것은 모두 선생이 비로소 말한 것이다. 乙卯年〔1555년〕 봄에 南쪽으로 돌아와서 깊이 생각하여 수정한 곳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初本과는 그 移動이 매우 많다. 지금 삼가 改本에 의거해서 右와 같이 옮겨 썼다. 戊午〔1558년〕 봄에 趙穆士敬은 쓰다.

李滉의 門人 趙穆이 상기 後記를 쓴 戊午(1555)年은 그 後記가 담긴 板本이 刊行된 해가 아니고, 李滉이 1554년의 初刊本에다 加筆해 놓은 것 또는 初刊本을 기초로 李滉이 혼자 다시 改稿한 것(改本)을 趙穆이

精寫한 해이다. 동後記에서 趙穆은 李滉의 改本이 이루어진 해를 1555年 봄이라 밝히었고 그것은 初本과 비해 移動이 매우 많다 하였다. 그런데 필자 생각에, 그 移動이 天命圖의 舊圖와 新圖와의 차이를 가르키는 것은 아닌듯 하다. 舊圖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란 文句가 新圖에서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바뀐 것은 前章의 節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1560년의 일인데, 改本이 작성된 해는 1555年이며, 趙穆이 이를 轉寫한 해는 1558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移動이 있다면 圖가 아니고 圖說 즉 附說에 있을 것이다. 趙穆의 後記에 “右의 圖說은… 삼가 改本에 의거해서 右와 같이 옮겨 썼다. (右圖說… 因改本轉寫如右)”라 적혀 있는데, 그 “右”는 退溪文集의 原集에 天命圖說後叙와 함께 수록된 天命圖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續集의 後記 바로 右쪽에 수록된 附說을 가르키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趙穆後記本の 附說은 綾城本에 수록된 李滉訂正의 텍스트보다 오히려 鄭之雲草稿의 그것에 가깝다. 바꾸어 말하여 綾城本의 李滉訂正 텍스트와 趙穆後記本の 李滉改稿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켜 趙穆은 그 後記에서 “그 移動이 매우 많다”라고 말한 것 같다.

이 趙穆後記本の 圖說(附說) 텍스트는 綾城本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後期 刊本과 한 文句를 빼놓고 똑같다. 즉 圖說의 第九節의 한 句절이 趙穆後記本에는

禹는 大聖人이지만 舜은 반드시 惟精惟一로서 경계하였고(禹大聖人也而舜必勉之以惟精惟一)

라고 舜과 禹를 짝지어 쓴데 대하여, 그밖의 다른 板本에는

舜은 大聖人이지만 堯은 반드시 惟精惟一로 경계하였고(舜大聖人也而堯必勉以惟精惟一)

라고 堯와 舜을 짝지어 쓴 것만이 다를 뿐, 그밖의 全文이 똑같다.

(1) 退溪文集의 天命圖說

退溪文集에 수록된 天命圖說에는 鄭之雲의 序가 없다. 나머지도 한글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天命圖說後叙와 天命圖(舊圖·新圖의 순)는 本集 第41卷(雜著)에, 附說과 趙穆의 後記는 續集 第8卷(雜著)에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다.

退溪文集은 그 本集이 1600年(庚子)에 발간되었고, 續集은 1746年(丙寅)에 刊行되었다. 그러므로 필자가 말하는 趙穆後記本은, 天命圖(舊圖·新圖)와 後叙가 1600년에, 附說과 趙穆後記가 1746년에 각각 板本化한 셈이다. 그런데 위에서 필자가 續集의 刊年을 1746年으로 본데 대해서는 異議가 제기될 수 있다. 동刊年은 續集의 刊記 즉 “上之三十二年丙寅仲書上辭六代孫守淵謹跋”中的 “上之三十二年丙寅”을 換算한 것인데, 그 換算에 있어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跋記者인 李守淵은 1693年(肅宗 11年)에 태어나 1748年(英祖 24年)에 죽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의 生存時의 上之31年이란 肅宗31年을 가르킨다. 그러나 그해는 刊記에 나오는 丙寅年이 아니고 乙酉年이며, 그이 나이 13歲이다. 바꾸어 말하여, 干支가 상치되며, 先祖의 文集을 編輯刊行하고 跋文을 쓸만한 年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자가 잡고 있는 1746년도, 즉 刊記의 干支인 丙寅에 기준한 換算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해는 上之 31年이 아니고 上之 22年 즉 英祖22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刊記에 나오는 上之年과 상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해는 李守淵의 나이가 54歲나 되므로, 그의 編輯刊行能力과 跋文執筆能力에 관해 의심할 바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續集의 刊年을 1746年으로 推定하는 것이다.

(2)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의 附錄인 天命圖說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는 李滉과 奇大升간에 往復한 四端七情論辯의

全書翰을 集大成한 것이다. 四七論辯의 발단이 天命圖說에 起因되기 때문에 등 논변이해의 기초적 참고자료로, 天命圖說이 이往復書의 卷末에 附錄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天命圖說의 編次는 鄭之雲의 序, 天命圖의 新圖, 附說, 退溪의 後叙, 趙穆의 後記의 순으로 되어있다.

위의 編次가 보여주듯이, 이 板本の 한 特異點은 天命圖의 新圖만 있고, 舊圖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이 四端七情往復書의 板本은 序·跋·刊記 등이 없어 刊年을 확인할 수 없다. 附錄단의 張數는 21張이며, 圖의 크기는 31.4×21.2cm이고, 匡廓은 四周雙邊, 半葉匡廓의 크기는 22.4×16.5cm. 有界로 10行 17字이며, 版心은 上下內向花紋魚尾로 되어있다.

D. 崇禎庚辰(1640년)全州板本

前節의 趙穆後記本이 他書의 一部分 또는 附錄으로 수록되어 간행된 데 비해서 이 全州板本은 독립된 單行本으로 간행되었다.

“崇禎庚辰暮春德水李植謹跋”이란 跋記를 지닌 跋文에 의하면 李植이 어느 民家에서 우연히 天命圖說 一本을 얻어 全州에 내려갔는데, 때마침 全州府尹 韓振甫가 그의 先大夫 久菴韓文稿의 文集을 錄刊하려 하는 지라, 그에게, 이 天命圖說도 아울러 刊行케 되면 後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해서 이 冊이 出刊케 되었다 한다.

이 板本은 별도의 刊記는 없으나 跋記가 刊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跋記에 적한 崇復庚辰暮春 곧 1640年 3月을 이 冊의 刊年으로 보아 무방하다고 본다. 刊地는 跋文의 문맥으로 보아 全州이다.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는 天命圖說의 板本은 이 全州板本인줄 안다. 필자가 조사확인한 것만으로도, 서울大學校圖書館奎章閣集書, 延世大圖書館, 高麗大圖書館, 潤松文庫, 藏書閣에 이 板本이 소장되어 있다.

이 板本の 編次는 鄭之雲의 序, 舊圖, 新圖, 附說, 退溪의 後叙, 李植의 跋 순으로 되어 있다. 내용(text)이 趙穆後記本の 그것과 다른 점은 附說 第9節의 한 문구가 趙穆本에선 “舜禹”란 작말로 쓰인 것이 이 全州板本에서는 “堯舜”의 작말이 쓰인 점이다(前節의 서두 참조).

이 冊의 張數는 22張이고, 책의 크기는 所藏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奎章圖本의 경우 29.2×19.7cm, 板廓은 四周雙邊, 半葉匡廓은 18.6×15.1cm이며, 有界로 10行 18字이고, 註는 雙行이며, 版心엔 上下內向花紋魚尾가 있다. 앞에 列記한 여러 소장본중 유독 藏書閣本만은 그의 板廓의 크기에 있어 張面에 따라 몇밀리씩의 長短의 차가 있으며, 다른 所藏本에 비해 대체로 數밀리 내지 1센치나 짧다. 아마 이본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뒤의 後刷本인 듯하다.

E. 林羅山跋本 : 正保3年(1646년)本과 慶州4年(1651년)本

“元和辛酉[1621년]孟夏日 羅山人道春 :”이란 跋記를 지닌 日本刊本으로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正保三歲[1646년]仲秋風月宗智刊行”이란 刊記를 가진 것이요, 또 하나는 “慶安四曆[1651년]孟春 中野小左衛門”란 刊記가 있는 것이다. 전자는 東京無窮會의 藏本으로 있다 하며, 후자는 우리 나라의 國立中央圖書館에도 소장되어 있다. 阿部吉雄가 兩板本을 대조해서 알리는 바에 의하면 正保本은 “慶安本과 아주 똑같은 것으로 異板이 아니¹⁶⁾”라고 한다. 이말은 바꾸어 말하여 慶安本은 正保本의 板本에 刊記만 새로 바꾸어 刻印해서 刊行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正保本이 林羅山跋本의 初刊本이요, 慶安本은 重刊本(後刷本)이다.

그럼, 그 板本이 底本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16) 阿部吉雄, 前掲書, 427.

17) 上文

한다.

羅山の 跋記年이 1621年이니, 이때는 아직 全州板本(1640年刊本)이 나오기 19年前이요 退溪續集에 실린 趙穆後記本(1746年刊)이 나오기 25年前이다. 따라서 이 兩刊本은 羅山跋本の 底本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刊本底本이 되었다면 韓國의 初刊本(1554年)이 아니었을까 한다.

林羅山은 그의 跋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右 天命舊新圖說은 朝鮮의 鄭秋巒과 李退溪가 지은 것이다. 우리집에 오랜 동안 이책을 간직하고 있었는데(余家藏此本久矣), 하루는 惺叟(藤原惺窩)에게 보였더니, “四端은 理에서 나오고, 七情은 氣에서 나왔다”는 말을 한 것이 바로 이책이라고 말하면서, 困知記의 說보다 이책의 說이 낫다고 하였다. 옛날에 趙松雪이 新羅의 沙門 金生의 글씨(書蹟)를 보고난 뒤, “어느 땅에서 이같이 훌륭한 才士가 태어났단 말인가”하고 말하였는데, 나도 이圖를 보니 그런 말이 나온다. 근자에 村上行信生이 나에게 이冊을 베끼어 줄 것을 간청하므로 이에 써서 보낸다.

상기 跋文내용으로 미루어, 이刊本(正保本과 慶安本)은 林羅山の 村上行信에게 준 林羅山 친필의 寫本이 저본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寫本의 저본은 林羅山の 집에 오랜동안 간직되어 왔으며 惺叟에게 보여준 바로 그 책(本)임을 알 수 있다.

序文에 “此本”이라고 표현한 그 “本”이 阿部吉雄가 보듯이 林羅山の 또 다른 친필 寫本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韓國에서 건너간 어떤 刊本 또는 寫本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서 고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 다만 자기가 베껴놓은 寫本을 가르켜 “우리집에 오랜동안 간직되어 온 책”(余家藏此本久矣)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지는 않게 생각되며,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베끼는데 底本으로 삼은 어떤 韓國本은 있었을 것이다.

이 冊의 編次는 天命國의 新圖·舊圖, 鄭之雲의 序, 附說, 李滉의 後叙, 四端七情分理氣辯, 林羅山の 跋, 刊記의 순으로 되어있다. 그중 四端七情分理氣辯은 이冊의 附錄격으로 붙인 모양인데, 그 내용은 李滉이,

奇大升에 대한 論四端七情 第二書 改本の 抄이다.

冊의 張數는 38張이며, 크기는 26.5×18.5cm이고, 板廓은 四周雙邊, 半葉匡廓의 크기는 21×14.6cm, 無界로 8行 16字(但 序는 4行 8字이며, 版心은 上下內向花紋魚尾로 되어있다.

또 이板本에는 日本式訓點이 墨筆로 붙여져 있다. 阿部吉雄는 이 訓點을 “刻한것 같다”고¹⁹⁾ 보았지만, 필자가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을 확인한 바로는, 印刷後에 墨筆로 일일이 訓點을 쓴 것이다.

F. 無刊記日本內閣文庫所藏本

跋文도 刊記도 없으며 林羅山跋本과 板本도 다른 日本刊本이 또하나 있다. 이 板本은 日本의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國立中央圖書館에도 그의 마이크로필름版이 소장되어 있다.

이 板本이 林羅山跋本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첫째, 各面에 界線이 있는 점(有界인 점), 둘째, 序文의 글자 크기가 本文의 그것과 같은 점, 즉 같은 行字數로 되어있는 점, 셋째, 天命圖가 舊圖·新圖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그러나 그밖의 점은 林羅山跋本과 같은 점 또는 비슷한 점이 많다: 內容(text)이 같고, 四端七情分理氣辯의 抄가 실려있는 점이 같으며, 筆體도 같고, 序를 빼놓고서는 各面의 行字數와, 그 첫자와 끝자도 같다.

張數는 33張이다. 林羅山跋本보다 張數가 줄어든 이유는 序의 글씨 크기가 本文의 그것과 같이 작아져서 行間數가 줄었기 때문이다.

V. 結 論

이 저작의 표제는 鄭之雲의 草稿엔 본디 「天命圖解」였는데, 李滉의

18) 阿部吉雄, 日鮮明に於ける主理振の系譜とその特質一困知記・天命圖說・自省錄をめぐつて一, 朝鮮學報, 14: 431(1959年 10月).

19)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427.

訂正을 받을 때에 「天命圖解」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표제가 지닌 天命의 뜻은, 天은 理이며, 命은 天(理)이 人과 物을 생하여 주는 것 곧 性을 가르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여 天命은 性命理氣를 가르키는 말로서 天命圖說이란, 性命理氣學의 대강을 圖로 表象해서 이에 說明을 붙인 것이다.

著作年代는, 綾城板本에 실린 鄭之雲의 序가 1543年 2月 날자로 쓰인 것으로 보아, 늦어도 1543년초에 草稿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全州板本 및 日本板에 실린 1554年의 序에, 이 저작을 지어 金安國(1478—1543)과 金正國(1485—1541)에게 보여 질의한바 있었다 하니, 늦어도 金安國이 죽은 1543年 이전에 그 草稿가 완성되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저작의 着手年代는 1537年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해로 말하면 金正國이 朝廷의 부름을 받고 은둔지인 高峯의 芒洞에서 서울로 복귀한 해인데, 鄭之雲이 동생 縣과 一家子弟들에게 天人之道를 講하게 된것은 金正國이 芒洞에서 떠나게 되자 그에 대신해서 그들을 講하게 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鄭之雲은 그 강의의 교안 내지 교재로 문이 저술을 마음먹게 된 것이다. 한편 李滉의 訂正을 받은 해는 1553年이다. 그것은 李滉의 後叙와 退溪年譜 및 鄭之雲의 序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간추려 말해서, 이 저작은 1537年 저술에 착수하여 6年만인 1543年에 그 草稿의 완성을 보았으며, 그 草稿를 완성한지 10年뒤인 1553年에 李滉의 訂正을 받고, 그 이듬해(1554年)에 이를 初刊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저작은 저술에 착수한지 16·7年만에 그의 완결을 보게 된 셈이다.

天命圖는 부피면에서 한장밖에 안되는 간단한 것이지만, 가치면에서는 이책의 主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뒤에 붙은 여러장의 圖說은 결국 이 圖의 해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天命圖의 본에는, 鄭之雲 草稿의 것과, 李滉의 訂正을 받은 것 두

가지로 大別되는데, 후자는 李滉이 鄭之雲과 토의하여 그의 합의를 얻어 訂正한 것과, 李滉단독으로 訂正한 것의 두가지로 나누인다. 대부분의 板本에는 후자의 두가지가 ‘舊圖’와 ‘新圖’란 이름아래 수록되어 있고, 訂正을 받기 전의 原圖 즉 鄭之雲의 草稿圖는 綾城板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舊圖에는 두가지 本이 있는데, 그 하나는 四七의 發을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표시한 本이요, 또다른 하나는 그發을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고 표시한 本이다. 舊圖의 전자는 初刊本에 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圖를 지금 退溪文集과 高峯文集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에 나오는 文句는 初刊本이 나온 뒤, 그 四七論에 대한 奇大升의 비판이 있자 李滉이 1559年 그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처음 修正해서 쓴 文句로서, 全州板本(1640年本)과 日本의 諸板本(1646年本, 1651年本 및 無刊記內閣文庫所藏本)에 舊圖란 제목아래 수록되어 있다.

新圖와 舊圖와의 큰차이 역시 四七의 發이 달리 표시된 점이다. 舊圖의 그것이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또는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비해서, 新圖는 그것이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修正되어 있는 것이다. 新圖의 출현은 1560年 11月부터 1578年 6月 사이의 일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그의 上限線을 1560年 11月로 보는 이유는, 그달에 奇大升에 답한 李滉의 書翰에서 그 文句가 비로소 나왔기 때문이며, 그 下限線을 1578年 6月로 잡는 이유는 그 날짜의 刊記를 지닌 綾城本에 新圖와 똑같은 내용을 담은 ‘退溪李先生天命圖’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天命圖의 構圖는 먼저 陰陽消長圖의 커다란 등그라미를 그려놓고, 上圓下方, 頭圓足方, 天人合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안에 다시 四德五行圖, 天命圖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점차로 心·性·氣·質·情·意·善惡 등의 分을 설정하고 있다. 鄭之雲의 原圖와 李滉의 訂正圖(舊圖 및

新圖)간의 큰 차이는, 전자는 큰 등그라미의 아랫자리를 子方水旺에 맞추어 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反해서, 후자는 그 윗자리를 子方水旺의 자리로 잡아 실발점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또다른 차이는, 新圖는 四七의 發에 관한 표시가 없는데 비해서 訂正圖에는 그 표시가 追加된 점이다. 天命圖를 그런식으로 構圖한 이유와 性命理氣의 哲學的 해설에 관해서는 그 天命圖의 뒤에 붙은 天命圖說(즉 附說) 및 李滉의 後叙에 詳述되어 있다.

刊本에는, 大別해서 國內의 것 4種, 日本의 것이 2種 있다. 國內刊本은 (1) 初刊本이 1554년에 나온 것으로 推定되나 아직 實物이 발견되어 있지 않으며, 현존한 것으로는, (2) 1578年(萬曆 6年)刊의 綾城板本, (3) 1640年(崇復庚辰)刊의 全州板本, (4) 그리고 退溪文集과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에 부록된 趙穆後記本이고, 日本板本은 (5) 1621年(元和辛酉)의 林羅山跋本(그의 刊本으론 1646年 本과 1651年本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板本임)과 無跋無刊記의 內閣文庫所藏本이 있다. 이들 板本中綾城板本엔 1543年(嘉清癸卯 二月)에 쓰인 序가 수록되어 있고, 그밖의 板本들(但 趙: 後記本은 제외)엔 1554年(嘉靖甲寅正月朔朝)에 쓰인 鄭之雲의 序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綾城板本엔 鄭之雲의 草稿와 李滉의 訂正本의 두本과 더불어 金麟厚(河西)의 天命圖가 참고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밖의 板本엔 李滉訂正의 이른바 舊圖·新圖와 附說한 本만이 수록되어 있다. 李滉의 後叙는 어느 板本에서도 볼 수 있으며, 日本板本들에는 모두 李滉이 奇大升에게 보낸 답서에 나오는 ‘四端七情分理氣辯’의 抄가 수록되어 있다.

이 天命圖說이 설명하고 있는 哲學은 朱子理氣說을 마음(心)의 문제로 한층 발전시킨바 있다. 또 圖說이 담은 四七論은 板本에 따라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에서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고 바뀌었고, 이것이 또다시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改變되었지만, 어디까지나 理氣二元論의 입장과 동시에 理를 氣보다 좀더 根源的

이고 優位的인 입장에서 보는 見解를 堅持하고 있는 것만은 여전하다. 이러한 主理的 思想의 堅持는, 멀리는 朱子學의 正統的 追究에서의 당연한 귀결인 점도 있지만, 가까이로는 權近의 入學圖說의 영향을 받은 바 더 컸을 것이다. 이러한 二元的 主理思想을 담은 天命圖說의 출현은 主氣的 思想을 가진 학자들의 도전을 유발케 하여, 마침내 李滉과 奇大升간에 四七論爭을 불러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 李滉으로 하여금은 主理哲學을, 李滉로 하여금은 主氣哲學을 각각 大成케 하였다. 天命圖說은 이모멘트를 마련해준 問題의 作인 것이다.